

양모의 품질로 본 면양의 종류

- 메리노 양, XRD 면양 -

세상에 분포하는 수백 종의 면양을 분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류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정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양모를 원료로 사용하는 모방업계로서는 양모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모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양모의 굵기에 따른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메리노(merino), 크로스브레드(crossbred) 그리고 카펫 울(carpet breed wool)의 세 가지가 된다.

먼저 메리노종은 세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가장 좋은 양모를 가장 많이 제공하였던 양종으로서 그 동안 인류의 의생활에 기여한 업적도 많았다.

현재의 메리노 양종은 그 원천을 Spanish merino에 두고 있으며, 이것에서부터 Saxony merino, Rambouillet merino, Tasmanian merino 등의 많은 혈통의 면양이 태어났고, 이 외에도 Peppin, Bungaree, Wanganella 등의 우수한 계통의 양이 무수히 탄생하였다. 그러나 양모의 품질로 볼 때는 Fine wool, Medium wool, Strong wool 의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Super fine wool 이라든가 Extra strong wool 이라고 불리는 메리노는 특수한 경우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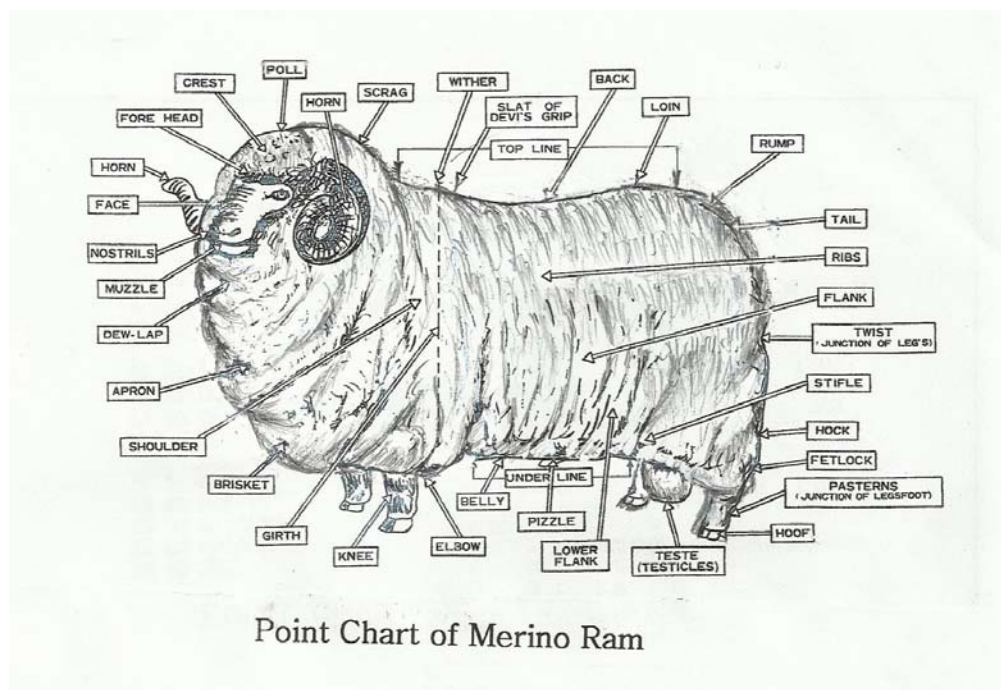
다음이 혼혈종이란 뜻의 Crossbred(XBD) 면양종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양종의 피가 섞인 것을 말하는데, 세계의 면양종을 크게 나누어 보면, 메리노종과 메리노종과 카펫 양모용 양종을 제외한 모든 양종을 XBD 양종이라고 하는 경우와 메리노와 영국종 그리고 순종 양 이외의 모든 면양을 XBD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Halfbred, 3/4 bred 처럼 세 가지 이상의 면양의 혈액이 섞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XBD 면양에서 채취되는 양모도 나라별로 다소 개념이 달라진다.

가령 호주에서는 메리노 양모 이외의 양모를 XBD 라고 하지만, Down and Shropshire, Lincoln, Comback 등은 예외로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메리로나 Halfbred 보다 굵은 양모를 XBD wool 이라고 하며, 다만 Southdown 만은 예외로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방에서는 양모 섬도 25μ 보다 굵은 양모는 모두 XBD 로 취급한다. 미국에서는 XBD 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1/4 Blood, 3/8 Blood 등으로 표시한다. 영국에서는 B.W.M.B. * 규격으로서 순혈종과 Halfbred 이외의 혼혈종은 모두 XBD로 되어 있다.

여하 간에 일반적으로 일단 XBD 양종으로 정하여지면, 이것도 Fine crossbred, Medium crossbred, Coarse crossbred 란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Down wool 이라든가 Luster wool 이라고 별도로 불리는 것은 crossbred 양모 중에서도 양모 품질의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즉 Down wool 로 된 XBD 란 뜻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다. ♣ (공석봉)

* B.W.M.B. ; British Wool Marketing Board.



<그림> 메리노 양의 부위별 명칭